

한국어 시제 어미의 형태적 오류와 교육 방안

- 관형사형 어미의 ‘-(으)르 때’를 중심으로

유승섭(원광대)

〈 목 차 〉

1. 머리말
2. 시제표현의 오류현황
3. 시제 개념에 따른 오류 원인
4.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의 교육 방안
5.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외국어로서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를 교수하기 위해 외국인 학습자들이 범하는 형태적 오류¹⁾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구성하자는 데 있다. 사실 어미에 대한 학습은 조사와 함께 한국어의 첨가어적인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하므로 학습자의 부담이 크다. 학교 문법에서 어미는 크게 어간과 어말의 위치에 따라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로 나뉘고, 어말 어미의 종류도 종결, 연결, 전성 어미로 나뉜다. 여기에서 전성 어미란 한 문장을 명사나 관형사 및 부사와 같은 단어의 자격으로 바꾸어주는 기능을 맡

1) 본 논문은 ‘문법적 오류’대신 ‘형태적 오류’란 용어를 사용한다. 그것은 ‘문법적’이란 말이 추상적 인식의 개념에 가깝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문법의 이해 부족으로 형태소 표기에 오류를 범하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후자의 용어를 사용한다.

하며, 종류에는 명사형 전성 어미와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있다²⁾. 이중 관형사형 전성 어미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상³⁾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교수법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가 시상과 통합되는 형태는 동사와 형용사에 따라 다르다. 동사는 과거형 ‘-(으)ㄴ’, 현재형 ‘-는’, 미래형 ‘-(으)ㄹ’ 그리고 회상의 ‘-던’이 있고, 형용사는 과거형 ‘-던’, 현재형 ‘-(으)ㄴ’, 미래형 ‘-(으)ㄹ’이 있다. 서술격 조사 ‘이다’에도 현재형 ‘-ㄴ’, 과거형 ‘-던’, 미래형 ‘-(으)ㄹ’로 실현되어 나타난다.⁴⁾

이 밖에도 시제와 별 관련 없이 단순히 특정 명사의 관형사형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관형사형 전성 어미와 결합하는 ‘-(으)ㄹ 때’, ‘-(으)ㄹ 적’, ‘-(으)ㄹ 기회’, ‘-(으)ㄹ 경우’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런 특정 명사 때문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의 제약을 이해하지 못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의 결합 관계를 구체적으로 들며 이들을 이해시키고자 효과적인 학습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2. 시제표현의 오류 현황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에 관한 연구는 김미옥(1994), 조철현(2002), 한송화(2003), 이정희(2003), 이소영(2003), 이향화(2006)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개 한국어 전반에 걸쳐서 또는 전성 어미에 나타나는 학습상의 오류를 분석하며 학습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관형사형 어미에 관한 연구 몇몇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조철현 외(2002)는 외국인 학습자들은 어미를 활용시킬 때 여러 가지

2) 이 밖에도 부사형 전성 어미가 있는데 이들에 관한 내용은 본고와 특별히 관련이 없으므로 논의를 접는다.

3) 시상이란 시제와 상을 아울러 말한다. 한국어에서 시상은 1960년대 이전(주시경(1910), 최현배(1937), 홍기문(1948))에는 시상을 구분하지 않고 시제라고 부르다가, 이승녕(1961), 나진석(1965)에 이르러 시제와 상을 분리 서술하기 시작했다. 반면 남기심(1972, 1975)은 상의 존재만을 인정하였고, 김석득(1974), 서정수(1976), 김성화(1990) 등은 이를 묶어 시제/상 개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본고는 시상의 개념을 논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고 다만 논의의 편의상 시제와 상을 아우르는 용어로 시상 또는 특별한 구분 없이 시제라 부르기로 한다.

4) 본 글에서는 과거형 ‘-던’의 형태를 외국인 대상 교수-학습에 초점이 있으므로 그 능률을 고려하여 ‘-더’와 ‘-ㄴ’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여기에 관한 내용은 각주 8) 참조 요망.

형태적 오류를 범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성어미를 다른 연결 어미와 혼용하여 사용한 오류’, ‘전성어미 내에서 명사형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를 혼용하여 쓴 오류’, ‘명사형이나 관형사형 전성 어미를 생략하고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만을 사용한 생략 오류’ 그리고 ‘명사형 어미 내에서의 오류’, ‘관형사형 어미 내에서의 오류’로 나누고 있다. 또 전성 어미의 오류 중에서도 관형사형 어미 내에서의 오류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⁵⁾. 특히나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를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쓰는 오류’,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를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쓰는 오류’,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를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쓰는 오류’,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를 과거 시제 관형사로 쓰는 오류’,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를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쓰는 오류’,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를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쓰는 오류’, ‘관형사형 어미 ‘-던’의 오류와 그 외의 제약이 있다고 하며 주로 형태적 오류 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다음 이정희(2003)는 여러 학습자 군을 대상으로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 실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 (1) ㄱ. 우리나라에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베트남, 고급)
- ㄴ.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는 기회도 학교밖에 없습니다. (일본, 고급)
- ㄷ. 어린 때부터 엄마하고 이모가 물건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태국, 고급)
- ㄹ. 주말에 한 일이 없어서 심심해 죽을 지경이었어요. (중국, 고급)
- ㅁ. 연태로 돌아간 때 기차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중국, 고급)

그는 (1)의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관형사형 전성어미 ‘-(으)ㄹ’을 사용해야 할 것을 ‘-(으)ㄴ/-는’으로 잘 못 사용하고 있음을 보이면서 조철현(2002)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1ㄷ)은 비단 초·중급의 학습자뿐만 아니라 고급 단계의 학습자들도 특정 명사⁶⁾ ‘때’ 때문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의 제약을 이해하

5) 조철현 외(2002),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 조사연구」, 2002년도 국어정책 공모과제 연구보고서, 224면.

6) 특정 명사란 ‘때’, ‘적’, ‘기회’, ‘경우’ 등을 일컫는다. 논의의 편의상 이를 대표해서 ‘때’로 칭한다.

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소영(2003)은 중국어권, 영어권 학습자에서 나타난 오류를 유형화하고 단계별로 대비 분석하고 있고, 이향화(2006)는 중국어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 유형을 음운·어휘·통사적 측면에서 분석하며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면서 상대적으로 연구 역사가 짧은 한국어의 학습 지도 방향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연구 범위를 좀 더 좁혀 시제 특히 관형사형 어미 상에서 나타나는 시제와 관련한 구문상의 문법(제약) 관계를 살피기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학습자들이 흔히 범하는 시제에 관한 오류 몇 가지를 선정하여, 대화체 문장의 자료를 제시하고(묻고 답하는 대화체 문장에서 묻는 말은 생략하기로 함), 자료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수치화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참고하며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다.

시제와 관련한 대화 문형은 크게 세 가지로 들었다. 하나는 관형사형 어미 없이 시제가 갖추어진 문형이고, 나머지 두 유형은 관형사형 어미 다음에 특정 명사 ‘때, 적, 기회, 경우’ 등이 올 때와 그 밖의 일반 명사가 피수식어로 나타날 때이다. 특히 후자의 특정 명사가 피수식어로 올 때 외국인 학습자들이 시제 인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며 형태적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기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여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학습자는 중국(25명), 몽골(25명), 일본(10명), 베트남(10명) 사람들이다. 이들은 한국에 1년 이상 머물면서 한국어를 학습한 중급 이상자들이다.

그러면 외국인 학습자들이 형태적 오류를 범한 문장의 일부를 유형별로 분류해 본다.

- (2) 가. 우리나라에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좋을지] 모른다.
나. 배고픈 철수가 밥을 얼마나 [*먹은지/먹을지] 모른다.
- (3) 가. 나는 어제 여섯 시에 [일어났다].
나. 학생들이 지금 교실에서 시험을 [본다].
다. 나는 내일 제주도에 [갈 것이다/간다].
- (4) 가. 영숙이는 어제 어머니가 [나가는/나갈] 때를 기다렸다.
나. 나는 내일 밤차로 [떠날 것이다/떠난다].

- ㄷ. 어제 네가 한 일이 [생각난다/생각났다].
- (5) ㄱ. 그 사람이 너무 [*못난다/못났다].
 ㄴ. 비가 너무 내려 [*야단난다/야단났다].
- (6) ㄱ. 우리가 먼저 군대에 [갈 것이다/가겠다].
 ㄴ. 나도 그 정도의 문제는 [풀 것이다/풀겠다].
 ㄷ.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눈이 [올 것이다/오겠다].
 ㄹ. 그가 30분 전에 이미 [도착했을 것이다/도착했겠다].
- (7) ㄱ. 기차가 서울역에 지금 막 [도착한다/도착했다].
 ㄴ. 공부를 안 했으니 너는 시험 잘 보기는 [*틀린다/틀렸다].
 ㄷ. 저는 아까부터 여기서 차례가 오기를 [기다린다/기다렸다].
 ㄹ. 어제는 날씨가 [흐렸다].
- (8) ㄱ. 내가 도착하자 그들은 이미 [*자고 있다/자고 있었다].
 ㄴ. 그들이 이미 밥을 다 [*먹어 버린다/먹어 버렸다].
- (9) ㄱ. 주말에 [*하는 일/할 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었다.
 ㄴ. 집으로 [??돌아갈 길/돌아가는 길]이 가장 좋다.
- (10) ㄱ. 학교에 [*오는 때/올 때]가 제일 많이 걷는다.
 ㄴ. 부엌이 있어서 먹고 [*싶은 때/싶을 때] 아무 시간이나 해 먹는다.
 ㄷ. 나는 [*어린 때/어릴 때]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ㄹ. 연태로 [*돌아간 때/돌아갈 때] 기차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ㄷ.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는/배울] 기회는 학교밖에 없다.

자료 (2)는 문장 내에서 상황에 따라 현재형과 미래형 어미가 가능한 예문이다. 곧 (2ㄱ)은 주절과 종속절의 연결 관계가 ‘조건’이나 ‘원인’이나 ‘결과’로 연결되느냐에 따라 ‘좋다’의 활용 여부가 달리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고, (2ㄴ)은 ‘밥 먹는 행위’가 완료된 상태였는지(‘먹은지’) 앞으로 있을 일인지(‘먹을지’)에 따라 제약이 따르는 구문이다. (3)과 (4)는 시간 부사가 올 경우 시제 개념의 인식 여부를 알기 위한 예문이다. (5)는 현재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한 예문이며 (6)은 단순히 미래의 시제적 의미를 묻는 문장이 아니고 화자의 의지나 가능성 그리고 양태적 의미 등을 알기 위한 구문이다. (7)과 (8)은 시제 형태소에 동작의 양상이 개입된 문장이며 (9)~(10)은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되어 뒷말을 수식할 경우, 일반적인 시제 개념과 일치하지 않아서 형태적 오류를 범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한 문형이다. 구체적으로 (9)는

피수식어가 일반 명사이고 (10)은 피수식어가 소위 ‘때’와 같은 특정 명사가 나타난 경우이다.

우리는 위의 문형에서 해당 부분을 괄호로 남겨놓고 학습자들에게 채워 넣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네모 안 숫자는 응답자의 수치이다.⁷⁾

<도표1>-<형태적 오류>

구분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중국(25)	16/9	1	14/11	10/15	12/13	11/14	7/18	16/9	15/8
몽골(25)	13/12	0	13/12	9/16	14/11	10/15	9/16	14/11	14/11
일본(10)	7/3	2	6/4	5/5	5/5	4/6	6/4	6/4	5/5
베트남(10)	6/4	1	6/4	9/16	5/5	6/4	5/5	6/4	4/6

위의 통계를 보면 외국인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간섭이나 말뭉치 상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개념 때문에 시제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중국이나 베트남 학습자들은 그들 모국어가 뚜렷하게 시제 구분이 없어서 여기에서 오는 인식의 차원으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고, 일본 학습자들은 음절 구조의 차이 때문에 형태적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위의 자료를 근거로 다음 장에서는 (2)~(10)의 오류 양상을 차례대로 분석하고 본고의 최종 목표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교육 방안에 대해서는 미래 시제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ㄴ’과 특정 명사 ‘때’의 결합 형태인 ‘-(으)ㄴ 때’에 관해 형태 의미적으로 변화 양상을 일으키는 구문에 한정된다. 주제를 ‘-(으)ㄴ 때’로 정한 이유는 다음 장의 관형사형 전성 어미의 오류를 살펴보면서 설명하겠지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먼저 가장 많은 오류로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를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즉, 특정 명사인 ‘때, 적, 기회, 경우, 정도’ 등 때문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의 제약에 따른 오류(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대체하는 오류)를 다수 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오류를 없애기 위해 시제의 제약이 있는 말뭉치 형태에 관한 교육이 외국인 학습자에

7) 도표에서 ‘/’의 앞 수치는 오류를 보인 경우이고 뒤는 맞는 답을 구한 수치이다. 다만 ‘3번’의 수치는 단순한 철자상의 오류를, ‘4번’과 ‘6번’은 선호도를 보인 경우이다.

게 필요하다. 특히 ‘경우, 정도’ 등의 명사보다 시간이나 경험을 나타내는 ‘때’, ‘적’이 특정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 제약이 많고 학습 수준도 낮으므로 ‘-(으)ㄴ 때’, ‘-(으)ㄴ 적’에 대해 교육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과거 시제가 결합된 ‘-었(았/였)을 때’를 함께 교육하는 일은 단순히 시제 교육을 넘어서 이들 간의 같고 다른 의미의 상관성을 이해시키는데 효과적이라 본다. 따라서 이 둘을 함께 다루는 교육 방안을 구성하기로 한다.

3. 시제 개념에 따른 오류 원인

3.1. 시간 표현의 오류

문장의 서술어는 시간 표현의 대상이기도 하다. 한국어에서 시간 표현과 관련된 문법 기능은 시제, 동작상, 서법 등이 있다. 시제는 발화시를 중심으로 사건시가 일정한 형태에 의해 나타난다. 동작상은 문장 안에서 동작의 양상을 표시하는 문법적 사실이고, 서법은 문장의 일정한 활용 형태를 통해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그런데 한국어는 시제와 동작상이 시제 형태소나 연결어미 및 보조동사 등에 각각 또는 연결 형태에 융합(融合)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앞에서 우리는 이를 시상이라 일컫기로 했다. 이러한 시상은 한국어는 종결형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연결형에 의해서도 표시되며 관형사형에서도 확인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대체로 학교문법이 ‘완료상’과 ‘비완료상’으로 나누고 이승녕(1961)은 ‘완료상/미완료상/지속상/기동상/순간상’으로 남기심(1972, 1978)은 ‘-었었-’을 ‘단속상’ 등으로 고찰하였다. 이익섭·임홍빈(1983)은 미래 시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상 형태가 그 의미가 확실히 드러나려면 발화시와 관련된 시간 부사나 부사적 표현의 말과 호응 관계를 이룰 때이다. 이때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시간 표현을 비교적 잘 이해한다. 실제로 아래 (12)의 문장이 주어졌을 때 외국인 학습자들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위 <도표1>의 3번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없는 문장에서는 인식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예문 (11)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다음 아래의 예문은 위 (2)~(10)을 차례대로 예를 다시 들어 설명한 것이다.

(11) ㄱ. 우리나라에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좋을지] 모른다.

ㄴ. 배고픈 철수가 밥을 얼마나 [*먹은지/먹을지] 모른다.

(11)의 ‘-(으)르지’는 막역한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의 활용형이다. 이 때 ‘-(으)르지’는 특별히 시상(시제)과 관계없는데도 학습자들은 화자의 상태나 동작을 현재형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보이며 ‘좋은지’, ‘먹은지’와 같은 형태적 오류를 범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위 <도표1>의 2번 항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4개국 학습자가 공히 과반 수 이상 오류를 보이고 있다. 반면 문장에서 시간 부사가 나오는 경우는 다르다.

(12) ㄱ. 나는 어제 여섯 시에 (일어났다/*일어난다).

ㄴ. 학생들이 지금 교실에서 시험을 (본다/*보았다).

ㄷ. 나는 내일 제주도 (가겠다/*갔다).

곧 (12)처럼 발화시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절대적 시제를 이해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 시간 부사에 따른 서술어의 관계를 시제상으로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류를 범하는 학습자도 적어서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문장의 사건시에 기대어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상대적 시제나, 서술어의 시제와 시간 부사와의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아래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이다.

(13) ㄱ. 영숙이는 어제 어머니가 (*나가신/나가실/나가시는) 때를 기다렸다.

ㄴ. 나는 내일 밤차로 (떠날 것이다/떠난다).

ㄷ. 어제 네가 한 일이 (생각났다/생각난다).

(13ㄱ)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면 ‘기다렸다’가 과거이므로 ‘나가실-’과 ‘나가시는-’도 과거에 일어난 행위이다. 그러나 사건시를 기준으로 하면 관형사형 어미 ‘-(으)르 때’, ‘-(으)는 때’는 상대적 시제이므로 발화시의 시제와 일치하지 않는다. 곧 ‘나가실-’과 ‘나가시는-’은 각각 과거에 있어서의 미래상과 현재 진행상으로, 전자는 말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후자는 말하는

시점에서 당시의 일어나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대적 개념의 시간을 외국인 학습자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 학습자들은 그들의 모국어에 상대적 시제 개념이 없는 까닭으로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따라서 이들은 단순히 부사어 ‘어제’에 맞춰 ‘나가신-’이나 ‘나가셨는-’으로 사용하는 오류가 많다. (13ㄴ)의 경우도 (12)처럼 절대적 시간 개념으로만 이해하려 들므로 “나는 내일 밤차로 떠날 것이다.”만을 적격한 문장으로 판단하고, “나는 내일 밤차로 떠난다.”와 같이 현재형으로 나타내는 문장은 비문으로 받아들인다. 이들에게는 (13ㄴ)처럼 미래의 확실한 의지나 (13ㄷ)처럼 과거의 사실을 나타낼 경우 현재 시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다음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시제로 연결시켜 기술하는 경우다.

(14) ㄱ. 그 사람이 너무 [*못나다/못났다].

ㄴ. 비가 너무 내려 [*야단나다/야단났다].

곧 (14)처럼 현재의 완료 상태를 시제 어미 ‘-나다’로 활용하여 현재형으로 기술하는 태도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를 단정지어 말할 때에는 과거 시제를 취해 완료형으로 기술해야 한다. 대개 외국인 학습자들은 (14ㄱ)을 서술어의 주체인 ‘그 사람’의 ‘못나고 잘 난 정도’를 현재 상태로 판단하여 그 결과를 현재 시제형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품사마다 달리하는 활용에 대한 이해 부족과 현재 완료상의 인식의 부족 탓이다. 곧 ‘못나다’는 형용사이며 이를 현재의 상태에서 단정지어 표현하려면 완료형인 ‘못났다’로 표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데서 오는 오류이다. (14ㄴ)도 ‘비가 이미 내려 상황이 완료되었는데도 ‘완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으킨 결과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시간 개념을 인식시킬 때 하나의 형태소가 시제나 상, 서법의 의미를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아래 ‘-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학습자들은 ‘-겠’을 단순히 미래 시제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밖에도 시제와 관련이 없는 의지나 가능성과 같은 양태적 의미로 쓰일 때도 많다.

(15) ㄱ. 우리가 먼저 군대에 [가겠다].

- ㄴ. 나도 그 정도의 문제는 [풀겠다].
- ㄷ.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눈이 [오겠다].
- ㄹ. 그가 30분 전에 이미 [도착했겠다].

위의 ‘-겠-’은 단순한 미래나 추측 외에 (15ㄱ)은 행동주의 의지를 (15ㄴ)은 가능성의 의지를 아울러 지니는 양태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15ㄷ)은 시간 부사어 ‘지금’이 쓰여 현재의 사건을 단순히 추측하는 의미로 (15ㄹ)은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와 쓰여 과거의 사건을 추정할 뿐 시제적 의미와 거리가 멀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겠-’도 시간과 관련된 미래 추측 외에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다음은 시제 형태소에 상이 결합된 경우이다. 이때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은 과거 시제 형태소 ‘-었(았/였)-’을 절대시제의 개념으로만 인식하여 어떤 사건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점이 발화시 이전의 시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시제 형태소에는 동작의 양상을 표시하는 상이 존재함을 지도해야 한다.

- (16) ㄱ. 기차가 서울역에 지금 막 [도착한다/도착했다].
- ㄴ. 공부를 안 했으니 너는 시험 잘 보기는 [*틀린다/틀렸다].
 - ㄷ. 저는 아까부터 여기서 차레가 오기를 [기다린다/기다렸다].
 - ㄹ. 어제는 날씨가 [흐렸다].

시제 형태소에는 일정한 사건의 양상이 들어있다. (16ㄱ)의 ‘도착한다’는 기차가 지금 도착하고 있는 상태이고 ‘도착했다’는 기차의 도착이 이제 막 완료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16ㄴ)은 당연한 결과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반어적으로 나타낸 경우로 단순한 과거 시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16ㄷ)은 ‘기다리는 행위’가 ‘진행’ 상태인지 ‘완료’ 상태인지에 따라 ‘기다린다’와 ‘기다렸다’로 구분되는 경우이고 (16ㄹ)은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연결 어미 ‘-고, -어’에 보조용언이 결합되어 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작상이 연결어미 ‘-고, -어’에 보조용언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날 때 상은 진행상, 완료상, 예정상으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

다. 이 중에서 시제 형태소 ‘-았(았/였)-’과 관련된 상은 진행상과 완료상이다. 그리고 상중에서도 과거 진행상과 과거 완료상이 ‘-았(았/였)-’에 구현된다.

(17) ㄱ. 내가 도착하자 그들은 이미 [*자고 있다/자고 있었다].

ㄴ. 그들이 이미 밥을 다 [*먹어 버린다/먹어 버렸다].

(17ㄱ)은 과거 진행상으로 앞의 행위가 끝난 뒤에 뒤의 행위가 시작됨을 나타내고 있고, (17ㄴ)은 과거 완료상이다. 그런데 학습자들은 (17ㄱ)의 ‘도착하자’를 현재 진행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도착하는 행위가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특히 부사어 ‘이미’가 문장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앞의 완료 상황을 반영하는 보조용언이 나와야 적격하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더불어 보조용언에 시제가 결합하면서 상이 반영된다는 사실을 이해시켜야 한다.

사실 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문법 기능 이어서 초급의 한국어 모어 화자들도 그 양상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에게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이상을 고려하면 시간 표현과 관련한 상의 문법 기능은 중급 이상에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음은 피수식어가 일반 명사가 오는 경우이다. 이때는 피수식어가 ‘때’가 올 때처럼 시제와 관계없이 미래형으로 써야 하는 경우(18ㄱ)와 미래형으로 나타내면 오히려 비문인 경우가 있다.

(18) ㄱ. 주말에 [*하는 일/할 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었다.

ㄴ. 집으로 [??돌아갈/돌아가는 길]이 가장 좋다.

ㄴ (18ㄴ)은 현재형으로 나타내야 올바르다. 만약 피수식어가 ‘길’이 아니라 ‘때’라면 ‘돌아가는 때’보다도 ‘돌아갈 때’가 자연스럽다. 이러한 차이는 피수식어가 갖는 특별한 성향 즉 특정 명사 앞에서는 미래형을 일반 명사 앞에서는 현재형을 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이제 피수식어가 특정 명사 ‘때’가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한 ‘-(으)ㄹ 때’와 ‘-(으)였(았/였)을 때’의 시제 양상을 살피기로 한다.

3.2. 관형사형 어미 오류

관형사형 어미가 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시제는 형태의 변화 및 환경에 따른 이형태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국어가 한국어인 학습자에게도 교수하기 어려운 문법 요소이다. 백봉자(1999:5-12)에 따르면 한국어 문법 사전 중 서구의 시제는 자연 시간에 따라 발화점을 중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되어 있으나, 한국어의 경우는 자연적인 시간상과 화자나 문장 주어의 동작상이 함께 어울려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을 아울러 시상이라 하는데, 한국어의 시상은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 -었(았/였)-, -겠-, -더-’나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ㄴ’에 나타나고, 또한 동작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고-, -어’에 보조용언이 연이어 실현되거나 연결어미와의 결합을 통해서 나타남을 위에서 기술한 바 있다. 이 중 어미를 통해서 나타나는 시제는 아래 도표와 같다⁸⁾.

〈도표2〉-〈한국어 어미의 형태와 시제〉

구분	현재(지속)	과거(완료)	미래(추측)	과거 회상
동사	-는	-(으)ㄴ	-(으)ㄴ	-던
형용사	-(으)ㄴ	-던	-(으)ㄴ	-던
있다	-는		-을	-던
사술격조사	-ㄴ	-던	-ㄴ	-던

우리는 ‘-(으)ㄴ 때’와 ‘-었(았/였)을 때’의 시제 양상에 따른 형태적 오류를 논의하기 위해 선어말 어미 ‘-(으)ㄴ’, ‘-었(았/였)-’의 문법 개념도 함께 살피기로 한다. 왜냐하면 대개의 학습자들이 선어말 어미를 단순한 시제의 개념으로만 인식하며 그것이 ‘때’와 결합했을 때 시제 외에 다른 기능을 생각하지 않

8) 본문 도표에서 관형사형 어미로 분류된 ‘-는’과 ‘-던’은 국어문법(「표준국어문법론」, 남기심·고영근(2007))에서는 교착적 선어말 어미 ‘-는-’와 ‘-더-’와의 복합 형식이므로 관형사형 어미는 ‘-ㄴ’과 ‘-ㄴ’에 국한된다. 하지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2005)에서는 “관형사형은 ‘-더-’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ㄴ’을 붙인 ‘-던’의 형태를 사용한다.(p204)” ‘-던’을 분석하기는 하지만 “한국어 수업 현장에서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시제에 대한 교수·학습에서 그 능력을 고려하여 이들을 분석하지 않고 ‘-는’, ‘-(으)ㄴ’, ‘-(으)ㄴ’에 비교되는 단일한 형태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보통이다.(p164)”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학습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고려하기 때문으로 본고도 이러한 방식을 취하여 제시하였다.

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제에 관한 문법 표현도 함께 논의해서 ‘-었(았/였)을 때’의 오류 양상을 효과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2.1. ‘-(으)ㄴ 때’

관형사형 어미 ‘-(으)ㄴ’은 미래 시제 어미로 중세국어에서 활발히 쓰인 ‘-리’를 제외하면 현대 국어에서 ‘-겠-’과 함께 널리 쓰인다. 그런데 관형사절(관형절)을 이끄는 어미 ‘-(으)ㄴ’은 ‘-겠’과 달리 양태적 의미가 없는 단순한 미래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뒤에 ‘때’와 같이 시간 표시 명사 앞에서는 특정한 시제로 해석되지 않는 단순 사실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곧 ‘-(으)ㄴ 때’는 ‘어떤 상황이나 행태가 진행되는 시간(time)을 단순 기술’한다.

- (19) ㄱ. 앞으로 읽어야 할 책이 많다.
ㄴ. 합격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라.

(19ㄱ)은 양태적 의미가 없는 단순한 미래 의지 관계를 (19ㄴ)은 시간적 의미와 관계없는 사실 관계를 나타낸다. (19ㄱ)과 (19ㄴ)의 차이는 피수식어가 ‘때[시간]’나 ‘적[경험]’과 관련이 있는 낱말이 오느냐 인데, 대개 ‘시간’이나 ‘경험’의 뜻을 갖는 ‘때’, ‘적’, ‘기회’, ‘경우’ 등이 오면 미래 시제 관형사형 ‘-(으)ㄴ’은 특별히 시제와 관련 없이 어떤 사건을 단순 기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앞서 기술 한바가 있다. (19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 (20) ㄱ. 자동차가 [충돌할 때/*충돌하는 때] 잠자고 있었다.
ㄴ. 비가 [내릴 때/*내리는 때] 우리는 집으로 달려갔다.
ㄷ. 학교에 [갈 적에/*가는 적에] 친구를 만났다.
ㄹ. 제주도에 [갈 기회가/*가는 기회가] 생겼다.
ㅁ. 우리들은 몸이 [아플 경우/*아프는 경우] 운동했다.
(21) ㄱ. 자동차가 [충돌할 때는/충돌하는 때는] 모두가 죽는 날이다.
ㄴ. 비가 [내릴 때는/내리는 때는] 구름이 많이 낀 경우이다.

(20)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때’, ‘적’ 등과 연결된 형식으로 동작 동사, 상

태 동사에 붙어서 ‘-(으)ㄴ 때’, ‘-(으)ㄴ 적’, ‘-(으)ㄴ 기회’, ‘-(으)ㄴ 경우’ 등 사건의 단순한 사실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관형사형 어미가 미래형이지만 미래의 추측이나 가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고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상황이나 상태를 단순 기술하고 있다. 당시의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재형인 ‘-는 때’를 쓰면 오히려 비문이 된다. 그러니까 ‘-(으)ㄴ 때’는 비록 미래 시제 관형사형이지만 미래 시제와 관계가 없다. 이처럼 주절의 서술어가 과거형이고 당시의 사건을 단순 기술하려면 관형사형 절의 시제는 미래형이어야 한다. 곧 (20)처럼 주절의 서술어가 ‘있었다’, ‘달려갔다’ 등과 같이 과거형이고 사건의 내용을 단순 기술하려면 관형사형 절은 미래형으로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21)과 같이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나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가 모두 결합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때는 (20)과 다르게 ‘-(으)ㄴ 때’가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가정하거나 전제할 때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는 때’와 같이 현재형으로도 표현이 가능한데, 이때의 의미는 미래의 일어날 상황을 현재 시제로 옮겨서 가정하는 내용이 된다. 후자에서처럼 미래 시제 관형사형이나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가 가능하려면 주절의 서술어는 현재형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관형사절(종속절)의 사건을 가정하거나 전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형은 가정이나 전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음으로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진행되는 일정한 시기인 동안(while)이나 진행 중인 도중(on one’s way)’을 나타낸 경우이다.

(22) ㄱ. 집에 [갈 때/*가는 때] 길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ㄴ. 엄마가 학교에 [올 때/*오는 때] 문구점에 들렀어요.

(22)의 ‘-(으)ㄴ 때’의 양상은 (20~21)과 같이 가정이나 전제를 나타내기보다 각각 당시에 ‘집에 가는 동안[도중]’과 ‘학교에 오는 동안[도중]’으로 [+진행상]을 나타낸다. 이때도 역시 ‘-(으)ㄴ 때’로 당시의 동작이나 상황을 나타내야지 현재형으로 나타내면 비문이 된다. 만약 (22)도 (21)과 같이 가정이나 전제를 나타낸다면 현재형 관형사형 어미인 ‘-는 때’가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선 또한 종속절은 전제를 가정하는 보조사 ‘은/는’이 결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서술의 형태도 가정에 대한 명제 형식으로 ‘~이다’와 같이 전개되어야 한다. 곧

아래와 같은 형식이어야 한다.

- (23) ㄱ. 집에 [갈 때는/가는 때는] 엄마가 나를 보러 오는 경우이다.
ㄴ. 엄마가 학교에 [올 때는/오는 때] 운동회를 하는 때이다.

문제는 (20~21)과 (22)의 ‘때’가 모두 ‘적’이나 ‘경우’로의 대치가 가능하고 의미도 ‘어떤 상황이나 행태가 진행되는 시간’나 ‘일정한 시기 동안’으로 비슷하여, 이 둘을 외국인 학습자가 명확히 구분 짓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둘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지금껏 살펴본 바대로 구문상에서 주절의 서술어의 시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따져서 과거형인 경우는 관형사형 어미가 미래형으로 나타나 관형절의 사건을 단순 서술하고, 현재형이면서 명제문으로 전제된 경우는 미래형이나 현재형 모두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3.2.2. ‘-었(았/였)을 때’

‘-었(았/였)’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소로 관형사형 어미 ‘-을’과 결합하여 ‘때’를 수식한다. 이때의 의미는 선행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된 시점에서 후행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 (24) ㄱ.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주인은 굉장히 기뻐했다.
ㄴ. 건물이 완성될 때 주인은 굉장히 기뻐했다.

(24ㄱ)은 ‘건물이 완성되고, 그 때(건물이 완성된 시점) 주인은 굉장히 기뻐했다.’는 말이다. 이러한 표현은 같은 뜻으로 (24ㄴ)과 같이 미래 시제 관형사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미 앞장 시간 표현에서 살펴보았듯이 ‘완성될 때’와 같은 미래 시제 관형사형으로의 표현은 주절의 과거 시제 ‘기뻐했다’의 상대적 개념으로써 과거에 어떤 시점 때 건물이 완성되자 주인이 기뻐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24ㄴ)도 (24ㄱ)과 같이 그 당시 ‘완료’의 시간을 나타낸다. 그러면 ‘-(으)르 때’와 ‘-었(았/였)을 때’의 의미 차이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문 환경을 통해서 의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주절의 서술어가 과거인 경우, 관형사형 어미가 과거로 쓰인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이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5) ㄱ. 영화를 봤을 때 팝콘을 먹었어요.

ㄴ. 영화를 볼 때 팝콘을 먹었어요.

위의 (25ㄱ, ㄴ)은 ‘화자가 과거에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었다’는 점에서 둘의 뜻은 같다. 이 경우 ‘때’는 ‘시간’이나 ‘동안’의 뜻을 지닌다. 그런데 (25ㄱ)의 시간은 (25ㄴ)의 시간과 다른 중의적 의미를 지닌다. 곧 (245)은 ‘화자가 영화를 다 본 다음에야 팝콘을 먹었다’는 뜻인 [+완료성]도 있는데 반해 (25ㄴ)은 이런 완료 행위가 없고 당시 영화 상영이 진행되는 때다. 그러나 대개의 표현은 주절의 서술어가 과거일 때 ‘-(으)ㄴ 때’와 ‘-었(았/였)을 때’는 아래와 같이 의미의 차이 없이 같이 쓰인다.

(26) ㄱ. 한국에서 살았을 때 여행을 많이 했어요.

ㄱ'. 한국에서 살 때 여행을 많이 했어요.

ㄴ. 그 회사에서 일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ㄴ'. 그 회사에서 일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둘째는 주절의 서술어가 과거나 현재냐에 따라 화자의 대상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곧 ‘-었(았/였)을 때’가 쓰일 때 문장의 주절이 과거일 때와 ‘-(으)ㄴ 때’가 쓰일 때 문장의 주절이 현재일 때 의미 차이가 있다.

(27) ㄱ. 영화를 봤을 때 팝콘을 먹었어요.

ㄴ. 영화를 볼 때 팝콘을 먹어요.

(27ㄱ)은 특정 화자의 과거 경험이다. 그러나 (27ㄴ)은 특정 화자의 습관이나 성향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의 보편적 행태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서 주어가 반드시 특정 화자일 필요가 없다. 이것은 주절의 서술어 시제에 따른 차이이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어에서 현재 시제의 표현은 다른 시제와 달리 무표적인 형태를 지니고, 연달아서 일반적인 현상을 가리키는 특징 때문인 것

로 보인다.⁹⁾ 다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8) ㄱ. 나는 어렸을 때 치마만 입었어요.

ㄴ. 나는 어릴 때 치마만 입었어요.

곧 (28)은 ‘화자가 어린 시절 치마만 입었다’는 점에서 둘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주어를 ‘대개의 여자아이들’로 일반화시키면 주절의 서술어가 과거 형태인 (28ㄱ)은 특정 화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어야 한다. 반면 주절의 서술어가 현재형인 경우는 특정 화자일 필요가 없어야 한다. 이런 가정의 진위를 증명하기 위해 (28)의 종속절의 주어를 일반인으로 대치시켜 보면 알 수 있다.

(29) ㄱ. ?대개의 여자아이들은 어렸을 때 치마만 입었어요.

ㄴ. 대개의 여자아이들은 어릴 때 치마만 입어요.

곧 (29ㄱ)처럼 주절과 종속절의 서술어가 과거형일 때 종속절의 주어가 특정한 대상에서 벗어나면 의미적으로 문장의 의미가 참값으로 도출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29ㄱ)이 비문인 까닭은 주어가 특정한 ‘나’가 아닌 일반화된 주어 ‘대개의 여자아이들’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29ㄴ)이 적격한 문장으로 도출되는 까닭은 주절의 서술어가 현재형(‘입어요, 입는다’)이어야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셋째는 ‘-(으)ㄴ 때’와 ‘-었(았/였)을 때’의 어간에 왕래·발착동사가 결합될 때는 두 관형사형 어미가 임의적으로 통용해서 쓰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30) ㄱ. 내가 (갔을 때/*갈 때) 집에 아무도 없었다.

ㄴ. 집에 (갈 때/*갔을 때) 길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31) ㄱ. 학교에 (왔을 때/*올 때) 교실에 마이클 씨가 있었어요.

9)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에 대한 가설로 무형태 가설과 유형태 가설이 있다. 무형태 가설은 한국어에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가 없는데, 그것이 형용사의 경우 ‘-다’로 표현되고, 동사의 경우 ‘-ㄴ다’나 ‘-는다’로 나타난다고 보는 견해이다. 하지만 동사라 하더라도 어말어미가 ‘-아/어, -지, -오, -소’ 등의 어미로 된 경우에는 현재 시제표지 ‘-느-’가 나타나지 않는다. 위의 예문 ‘먹어요’는 단순한 시제 형태가 아니라 ‘사건의 일어남’이나 ‘사건의 진행됨’의 과정이나 실현성의 의미를 띤다.

ㄴ. 학교에 (을 때/*왔을 때) 문구점에 들렀어요.

특이하게도 관형사형 어미가 왕래·발착동사인 ‘가다, 오다, 도착하다, 떠나다’ 등과 결합될 때 ‘-(으)ㄴ 때’는 ‘진행의 시간+진행상’을, ‘-었(았/였)을 때’는 ‘완료의 시간+완료상’을 나타내서 둘의 구분이 뚜렷하여 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30ㄱ)과 (31ㄱ)은 각각 ‘아무도 없었다’, ‘마이클 씨가 있었다’처럼 주절의 사건의 행위가 완료형이므로 종속절도 완료의 시간을 나타내는 ‘-었(았/였) 때’로 연결되어야 적법하고, (30ㄴ)과 (31ㄴ)의 ‘친구를 만났다’나 ‘문구점에 들렀다’는 종속절의 주어가 목적지를 오가는 도중 즉 ‘진행상’에 일어난 완료된 사건이므로 진행의 시간을 나타내는 ‘-(으)ㄴ 때’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상의 조건이 부합되지 않으면 관형사형 어미의 교체가 제약을 받는다.

지금까지 여러 구문을 통해 ‘-(으)ㄴ 때’와 ‘-었(았/였)을 때’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제와 관련하여 사건의 진행이나 완료 여부를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구문 환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짐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구문 환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현상을 외국인 학습자에게 체계적으로 교수하는 일은 어렵고 교육적 효과도 떨어진다. 따라서 초급단계에서는 시제의 개념을 발화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사건시(과거, 현재, 미래)를 지도해야 하고, 중·고급반으로 올라갈수록 주절의 사건시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시제와 관형사형의 결합 형태 그리고 구문의 환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현상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으)ㄴ 때’와 ‘-었(았/였)을 때’가 관형절(종속절)을 이끌 때 구문 환경에 따라 의미 차이를 일으킨다는 점을 인식시키며 교육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4.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의 교육 방안

여기서는 ‘-(으)ㄴ 때’가 갖는 기본적 의미인 ‘시간’이나 ‘경험’을 나타낼 때 쓰이는 구문을 토대로 ‘-었(았/였)을 때’를 함께 비교하며 가르치는 교육 방안을 제시(presentation), 연습(practice), 활용(production) 그리고 마무리 단계로 구성하여 제시하고자 한다¹⁰⁾.

초급 단계의 학습 내용(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 동사와 형용사의 특

정, 각각의 관형사형 전성어미 ‘-(으)ㄴ, -는, -(으)ㄹ, -던’을 학습한 경우)을 마친 학습자를 대상으로 관형사형 어미 ‘-(으)ㄴ 때’와 ‘-있(았/였)을 때’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상황이나 행태가 진행되는 시간(time)을 단순 기술’하는 의미를 지닌 ‘-(으)ㄴ 때’의 의미와 과거형 ‘-있(았/였)을 때’를 교수 하는데 있어, 먼저 ‘-(으)ㄴ 때’ 교육 방안을 제시, 연습, 활용 그리고 마무리 단계로 제시하고(이하 PPP방식이라 칭함.) 뒤이어서 ‘-있(았/였)을 때’도 역시 제시, 연습, 활용, 마무리 단계로 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는 두 문법 항목(‘-(으)ㄴ 때’와 ‘-있을 때’)을 동시에 소위 PPP방식으로 구성하는 방법과 따로 따로 단계를 밟아 가는 방식 중 후자를 택했다. 그 이유는 동시에 ‘-(으)ㄴ 때’와 ‘-있(았/였)을 때’를 진행하려면 (19~20)의 예문에서 보여주듯이 이 둘의 차이가 보다 분명한 ‘-(으)ㄴ 때’의 둘째 번 의미¹¹⁾를 언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러나 본 글은 ‘-(으)ㄴ 때’의 첫째 번 의미(‘어떤 상황이나 행태가 진행되는 시간(time)을 단순 기술’)를 논의하는 것이 더 큰 관심의 대상이고, 또 어떤 일의 일반적 사실(습관적 상태)을 뜻하는 기본형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학습하는데 효과적이라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견지로 각각의 항목이 PPP 단계를 밟아 가는 방식을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
- 10) 문법 교수 모형은 정보 처리 과정을 상향식 접근 방식(bottom-up approach)을 따를 것인지 하향식 접근 방식(top-down approach)을 따를 것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상향식 접근은 작은 단위에서 문법의 의미와 구조를 익혀서 점점 큰 단위로 확장해가는 방식이다. 상향식 모형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는 ‘제시’, ‘연습’, ‘생성’으로 이어지는 PPP 모형이 널리 사용된다. 한국어 문법 교수 모형으로 상향식 모형이 활용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조적 교수요목(structural syllabus)을 활용하던 한국어 교육에서는 문법을 분리하여 제시하는 상향식 모형이 잘 부합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또한 문법 교육을 말하기 등의 기능 교육과 연계·통합하는 현재의 교과과정에서는 문법을 익힌 후에 연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상향식 모형이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도 있다. 또한 청각구두식 교수법에 의사소통 교수법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문형 반복 연습과 유의미적인 의사소통 활동을 연계하기에도 상향식 모형은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본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고자 한다.
 - 11) 둘째 번 의미란 본문의 예문 (22)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진행되는 일정한 시기인 동안(while)이나 진행 중인 도중(on one’s way)’을 말한다.

4.1. ‘-(으)ㄴ 때’의 교육 방안

4.1.1. 제시 단계

‘때’라는 명사를 동사나 형용사가 수식할 경우, 시제와 관계없이 ‘-(으)ㄴ 때’와 같은 관형사형 어미로 연결해야 한다. 이것을 학습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그림 교재나 그림 카드를 제시하고, ‘언제’라는 의문사를 사용하여 쉽고 간단한 질문을 학습자에게 제시한다. ‘언제’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통해 ‘때’라는 명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줌으로써 학습자에게 이런 상황에서는 ‘-(으)ㄴ 때’란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준다. 예를 들어 아파서 병원에 가야하는 사람의 그림과 병원 그림을 연속적으로 제시하고 “언제 병원에 가나요?”와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아플 때 갑니다.”와 같이 쉽고 간단한 대답을 통해서 ‘-(으)ㄴ 때’를 떠올리도록 실생활과 관련 있고 관심 있는 일상의 문제를 제시한다.

4.1.2. 연습 단계

‘-(으)ㄴ 때’를 학습자들에게 인식시키고 나면 이미 ‘-(으)ㄴ, -는, -(으)ㄴ’이라는 관형사형 어미를 익힌 학습자들은 시제에 관하여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연습 단계에서는 그림 등을 제시하며 단순한 문장의 연결을 통해서 ‘때’나 ‘적’, ‘기회’, ‘경우’ 등의 앞에서는 대개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무의식중에 알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킨다. 이 때 ‘-(으)ㄴ 때’는 동작이나 상태가 진행되거나 어떤 사건을 시제와 관계없이 단순 기술한다는 사실을 이해시킨다. 그리고 발화 상황에서 이런 의미를 지니는 구문을 만들어 말하기 연습을 시킨다.

(32) ㄱ.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집으로 달려갔다.

ㄴ. 공부를 할 때는 휴대폰을 꺼야 해요.

ㄷ. 강의를 들을 때는 선생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해요.

곧 (32ㄱ)과 같이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진행되는 때나, (32ㄴ, ㄷ)과 같이 사건을 단순 기술하는 구문을 제시하여 연습시킨다.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

해서는 학습자의 주의력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해당 활자를 조작하여 글자체 바꾸기(‘**시작할 때**’), 글자 크기 확대하기(‘**시작할 때**’), 밑줄 긋기(‘**시작할 때**’), 진하게 표시하기(‘**시작할 때**’), 이탤릭체(‘**시작할 때**’) 사용하기, 컬러로 초점주기(‘**시작할 때**’)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인식시킨다. (32)는 지면상 밑줄 긋기 하나만 예들 들어 제시했다.

4.1.3. 활용 단계

예문을 제시하고 ‘-(으)ㄴ 때’를 사용하여 자신의 습관이나 버릇에 대해 이야기하는 활동을 한다. 먼저 교사가 그림 자료를 제시하며 “저는 잠을 잘 때 코를 고는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을 어떤 버릇이 있나요?”라고 물어서 소리 내어 말하도록 한다. 또 대화문을 만들어 상대방과 짝을 지어 대화를 하도록 한다. 또 실생활에 필요한 광고 자료나 재미있는 만화를 이용해서 소리 내어 읽거나 빈칸, 밑줄 긋기, 이탤릭체 쓰기 등을 실제로 쓰도록 한다. 고급 학습자일 경우는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의 실제 대본을 활용하여 역할극을 하도록 한다.

4.1.4. 마무리 단계

마무리 단계는 연습, 활용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인식시켜준다. 방식으로는 ‘책, 연필, 마이크, 휴지, 수영복, 그림’과 ‘공부를 하다, 노래를 부르다, 화장실에 가다, 수영장에 가다’의 말을 제시하고 교사가 먼저 “수영장에 갈 때 수영복을 가져가요.” 그러면 “노래를 부를 때 뭐가 필요하죠?”라고 물으면, 학생들이 “노래를 부를 때 마이크가 필요해요.”라고 올바르게 대답하는지 확인한다. 또 텍스트를 교사 앞에서 소리 내서 읽게 하거나, 빈칸을 만들어놓고 써보도록 하고 동료들의 평가나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는다.

4.2. ‘-었(았/였)을 때’의 교육방안

4.2.1. 제시 단계

이미 ‘-(으)ㄴ 때’에 익숙해진 학습자들에게 ‘-었(았/였)을 때’를 가르칠 경우

에는, 과거의 어느 상황을 제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있(았/였)’이라는 선어말 어미를 첨가해준다. 그러나 ‘-(으)르 때’와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언제’라는 의문사를 사용하는 대신에 ‘처음, 마지막’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질문을 준다. 이미 완료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므로 ‘-(으)르 때’의 경우와 다르다는 것을 환기시킨다. 주의해야 할 점은 관형사 절의 서술어가 왕래·발착 동사가 아니면서 주절의 서술어가 과거인 경우에는 대개 ‘-(으)르 때’와 ‘-있(았/였)을 때’가 통용됨을 인식시키며, 왕래·발착 동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을 이해시킨다. 그런 다음 ‘첫인상’, ‘첫 수업’ 그리고 ‘여행지의 경험’ 등과 같은 주제로 교사가 ‘-있(았/였)을 때’의 표현을 사용하여 먼저 질문을 해 본다.

4.2.2. 연습 단계

계획표나 일기 등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과거에 있었던 일 또는 과거 자기 선생님에 대한 첫인상에 대해 ‘-있(았/였)을 때’를 사용하여 그 당시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선생님을 처음 뵈었을 때가 생각났다.”를 먼저 제시하여 따라 읽도록 하거나 ‘뵈었을 때’를 빈칸으로 만들어 놓고 써 넣도록 한다. 또 똑같은 뜻으로 ‘뵈었을 때’를 대체할 수 있는 말(‘뵈 때’)을 채워 넣도록 연습시킨다. 이 밖에도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글자체 바꾸기, 글자 크기 확대하기, 밑줄 긋기, 진하게 표시하기, 이탤릭체 사용하기, 컬러로 초점주기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4.2.3. 활용 단계

연습 단계에서 익힌 여러 방법을 염두하며 자신의 휴가나 방학을 어떻게 보냈는지 친구에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 어렸을 적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휴가지의 사진과 그 곳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말하면서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있(았/였)을 때’가 자연스럽게 쓰인다는 것을 익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대화문을 이용하여 상대방과 짝을 지어 대화를 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있(았/였)을 때’를 활용하여 대화문을 만들거나 글쓰기를 하도록 한다.

4.2.4. 마무리 단계

‘-었(았/였)을 때’가 들어가는 여러 상황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매운 김치를 먹었을 때”,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 등을 제시하고 이럴 때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물어 확인시킨다. 또 텍스트를 교사 앞에서 소리 내서 읽게 하거나 빈칸을 만들어놓고 써보도록 하여 즉석에서 동료들의 평가를 받거나 피드백을 통해서 교사가 확인하며 마무리를 짓는다.

5. 맺음말

이상으로 관형사형 어미 중 ‘-(으)르 때’와 ‘-었(았/였)을 때’를 중심으로 외국인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를 분석하고, 이 둘의 쓰임 관계를 살펴서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교육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관형사형 어미와 관련하여 국적별 서로 다른 학습자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미를 활용할 때 관형사형 어미 내에서 형태적으로 잘 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중에서 외국인 모두가 특정 명사인 ‘때’, ‘적’, ‘기회’, ‘경우’ 앞에서 시제와 관계없이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연결해야 할 것을 현재 시제 어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오류를 범하는 원인은 한국어의 시간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위해서 먼저 한국어의 시제(절대 시제, 상대 시제)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그런 다음 ‘-(으)르 때’와 ‘-었(았/였)을 때’로 구성된 문장에서의 의미 차이와 그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외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시간 표현 중 발화시를 중심으로 결정되는 절대적 시제는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음을 통계 수치를 통해서 보았다. 그러나 사건시에 기대어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상대적 시제나, 서술어의 시제와 시간 부사간의 시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소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살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에는 상대적 시제가 있다는 점을 관형절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으며, 이런 바탕 위에서 ‘-(으)르 때’와 ‘-었(았/였)을 때’ 구문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의미를 이해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으)르 때’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어떤 상황이나 행태가 진행되는 시간(time)을 단순 기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작이나 상태가 진행되는 동안(while)이나 도중(on one’s way)’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으)르 때’가 이런 의미로 쓰일 때 주절의 서술어가 과거형이나 아니냐에 따라 관형사형의 활용 형태가 달라짐(‘-(으)르 때’ 또는 ‘-는 때’)을 보았다. 또한 주절의 서술어가 과거형인 경우 대개 ‘-(으)르 때’와 ‘-었을 때’가 의미에 차이가 없이 수의적으로 교체가 가능하지만 후자는 [+완료성]이 있다는 점에서 둘의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음도 보였다.

다음 관형절의 동사의 유형이 ‘가다’, ‘오다’처럼 왕래·발착 동사가 쓰였느냐 아니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관형사형 어미에 왕래·발착 동사 이외의 동사가 결합되고 주절의 서술어가 과거 형태이면 ‘-(으)르 때’는 시간과 관계없는 ‘단순 기술’을 나타내고, 의미 또한 차이가 없이 ‘-었(았/였)을 때’와 교체가 가능하였다. 반면에 ‘가다’, ‘오다’ 등의 왕래·발착 동사에 관형사형 어미 ‘-(으)르 때’가 결합되면 뜻은 ‘어떤 동작이 진행되는 동안이나 도중’을 나타내고, ‘-었(았/였)을 때’가 결합되면 ‘동작 완료’의 뜻을 나타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서로 다른 뜻을 지녀서 ‘-(으)르 때’와 ‘-었(았/였)을 때’의 교체가 불가능하였다.

끝으로 ‘-(으)르 때’와 ‘-었(았/였)을 때’로 나누어서 이들이 시간 개념과 관계 없이 사건을 단순 기술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 외국어 교수법에서 널리 쓰이는 제시(presentation), 연습(practice), 활용(production) 그리고 마무리 단계와 같은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 단계는 동사나 형용사가 ‘때’를 수식할 경우 시제와 관계없이 ‘-(으)르 때’와 같은 활용으로 수식해야 함을 알도록 하는 단계이다. 이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그림 교체나 그림 카드를 제시하고, ‘언제’라는 의문사를 사용하여 쉽고 간단한 질문을 학습자에게 제시하여 흥미를 유발하도록 했다. 연습 단계에서는 ‘-(으)르 때’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발화 상황에서 지켜야 할 일은 ‘-(으)르 때’를 사용하여 말하기 연습을 시키는데, 이 때 관형사형 어미 부분에 글자체 바꾸기(‘**시작할 때**’), 글자 크기 확대하기(‘**시작할 때**’), 밑줄 긋기(‘**시작할 때**’), 진하게 표시하기(‘**시작할 때**’), 이탤릭체(‘**시작할 때**’) 사용하기, 컬러

로 초점주기(‘**시작할 때**’)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시각을 통해 주의력을 환기시키며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활용 단계는 예문을 제시하고 ‘-(으)ㄴ 때’를 사용하여 자신의 습관이나 버릇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했다. 또 대화문을 만들어 상대방과 짝을 이뤄 말하기 활동을 시키거나 더 나아가 영화 대본을 활용하여 역할극을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마무리 단계는 연습, 활용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로 학생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교사 앞에서 텍스트 읽게 하거나 빈칸을 만들어놓고 써보도록 하는 등 즉석에서 동료나 교사의 평가로 마무리 짓도록 하였다.

본고를 마무리 지으면서 아쉬운 점은 언어권별로 시제가 달라서 다양한 형태에 따라 의미가 다른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를 이해하는 태도가 그들 모국어와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러한 원인으로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에 형태적 오류를 보이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후일의 연구로 넘긴다.

〈참고문헌〉

- 강 신(2009),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문법비교연구」, 한국문화사.
- 국립국어연구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미옥(1994), 「한국어 학습에 나타난 오류 분석」, 한국말 교육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나진석(1965), 「국어 움직임의 때매김 연구」, 한글 134.
- 김석득(1974), 「한국어의 시간과 상」, 한불연구, 연세대 1.
- 김성화(1990), 『현대국어의 상연구』, 한신문화사.
- 남기심(1972, 1975), 「현대 국어 시제에 관한 문제」, 국어국문학, 55~57면.
- 박영순(2005),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론』, 월인.
- 백봉자(1999), 『한국어문법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 서정수(1976), 「국어 시상 형태의 의미 분석 연구」, 문법연구 3.
- 이관규(1999), 『학교문법론』, 월인.
- 이미혜(2007), 「제2 언어 교수 이론에 바탕을 둔 교수 모형의 보완」, 한국어 교육 제18권, 2호.
-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 이정희(2003),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연구」, 박이정, 197~200면.
- 이향화(2005), 「중국인의 한국어 학습상 오류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 논문, 47~52면.
- 임홍빈·이호빈(2002), 『한국어 구문분석 방법론』, 한국문화사.
- 임호빈·홍경표·장숙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연세대학교 출판부.
- 조명숙(2005), 「한국어문법교육과 한·베트남어 대비분석」, 서울대국어교육연구16.
- 조철현 외(2002),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 조사 연구」, 2002년도 국어 정책 공모과제 연구보고서 217~225면.
- 주시경(1910), 『국어문법』, 경성: 박문서관.
- 최영희·유승섭(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능력시험 중급』, 신아출판사.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한송화(2002),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분석: 전성 어미에서의 오류』, 외국인

로서의 한국어교육27, 연세대 언어교육원 한국어학당, 571~608면.
홍기문(1947), 『조선문법 연구』, 서울신문사.

<대학 별 한국어 교재>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 경희대학교 한국어 초급Ⅱ, 경희대학교 출판국.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고려대학교 한국어2, 한국어 회화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서강대학교 한국학 센터. 서강대학교 한국어 3, 4, 서강대학교 한국학 센터.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3. 문진미디어.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대학교 한국어 2,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중 ‘-(으)르 때’와 ‘-었(았/였)을 때’를 중심으로 외국인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를 분석하고, 이 둘의 쓰임 관계를 살펴서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교육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외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어는 관형사형 어미가 시제와 관련되어 활용되기 때문에 시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제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었더라도 여전히 형태적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특정 명사인 ‘때’, ‘적’, ‘기회’, ‘경우’ 앞에서는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것은 이들 특정 명사 앞에서도 시제와 관련시켜 사건을 진술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들 명사 앞에서는 대부분 시제와 관계없이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연결해야 한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현재 시제 어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오류를 범하는 원인은 한국어의 시간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위해서 먼저 한국어의 시제(절대 시제, 상대 시제)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그런 다음 ‘-(으)르 때’와 ‘-었(았/였)을 때’로 구성된 문장에서의 의미 차이와 그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 방안은 흔히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활용되는 ‘제시’, ‘연습’, ‘생성’으로 이어지는 PPP 모형으로 소개하였다.

주제어: 문법 교육, 관형사형 어미, 특정명사, 제시, 연습, 생성, 교육 방안

【Abstracts】

The error of the ending Prenoun form and the education device

Yu, Seung-seob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Korean for foreign learner by discussing the ending of Prenoun form. The learners have had difficulties for several grammatical elements to study Korean. One of them is the ending of Prenoun form. The ending of Prenoun form is an essential grammatical element because it has a major role in a sentence and uses very often. However, learners have a difficulty for understanding the ending of Prenoun form due to the fact that it ties together with tense in a sentence. For example, even though the ending of Prenoun form is classified in past, present, and future tense, it shows past, present, future tense itself. However, there is not always consistent between the ending itself and the meaning of ending. In other words, the future form of the ending '—(으) ㄹ' does not represent the future tense. Rather, '—(으) ㄹ' often represents present event. In this case, the best device for foreign learner to understand the ending is that Korean simply expresses the future tense of the ending along with certain noun without tense. Certain noun can be explained as occasion, time, and case etc. To understand this phenomenon effectively, author insists presentation, practice, and production which are wildly introduced.

key words: Prenoun form, presentation, practice, production, on one's way, future tense, education device, foreign learner

이 논문은 2009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1월 11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0년 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